

## 제 6 부 신앙형태 (第 6 部 信仰形態)

제 6 부에서는 신사를 중심으로 널리 전파된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중세부터 근세에 걸쳐 산악을 무대로 전개된 신앙이나 코신(庚申)\* 등의 민간의 모든 신앙, 그리고 신앙의 형태로서의 기원(祈願)이나 보쿠센(卜占)\* 등을 정리하고, 신앙자의 집단을 설명한다. 시점을 넓혀서 신앙의 형태도 알아보려고 한다.

주요한 것을 각각 소개한 것에 그치지만, 신사를 핵으로 하는 신앙으로는 이세(伊勢)를 비롯해서 20 여개의 예를 들었다. 신앙의 대상인 신들의 분포에는 몇가지 유형이 있다.

봉제(奉齋)하는 씨족의 분포에 의해 퍼져가는 예로서 여기서는 스와(諏訪), 무네카타(宗像) 등을 들고 있지만, 카모신(賀茂(=鴨)神)도 그 전형이며, 전국에 지명(地名)이 붙여진 신사가 생긴다. 이런 것들은 본래 같은 씨족신이고, 결국 그것이 지역신이 되어서 신앙되어진다.

중심이 되는 신사와의 관계를 보면, 헤이안(平安)시대에 카시마신궁(鹿島神宮)\*의 미코가미(御子神)\*가 동북지방에 분포되어있고, 이 제사에는 카시마신궁이 관련되어 있었다. 또 나라(奈良)의 카스가사(春日社)에 카시마신이 분사(分祀)되었기 때문에, 카스가사(春日社)의 마즈리에도 카시마의 신세(神稅)가 할당되었다. 여기에는 분사의 신사와 그 기원이 된 신사와의 관계가 엇보인다. 근세가 되고나서도 카시마코토부레(鹿島ことぶれ)의 부적을 배포하는 것으로 일반민중에게 카시마신앙\*이 퍼져간다. 카토리(香取)·카시마·이키스(息栖)의 삼사(三社)를 순례하는 것이 유행한 이유는, 토네천(利根川)을 비롯한 내륙수운의 발전과 함께, 에도서민의 풍성한 여유도 무시할수 없다. 이 카토리·카시마신에는 무신(武神), 강한 신으로서의 신앙이 고대부터 보이고, 특히 몽고습래 때에는 이국강복(異国降伏)의 기원(祈願)도 보인다. 여행갈 때의 카시마다치(鹿島立ち : 원래 먼곳으로 갈 때 카시마신궁에 참배를 하고나서 떠난다)의 습관도, 무도장에 모셔져 있는 신으로서도 양신(兩神)의 강한 면에 감화된다.

신메이사(神明社)와 카스가사(春日社)와 같이 관련이 있는 장원(莊園)이나 미쿠리야(御厨)에 모셔진 것도 있다. 각지의 미쿠리야신메이사(御厨神明社)는 미쿠리야조직이 붕괴한 후에도 남게 된다. 그것의 큰 요인으로는 오시(御師)에 의한 부적의 배포와, 이세신궁에 참배하도록 하는 권유로 인해 서민층으로 전파되었다고 본다. 카스가신(春日神)은 코쿠가(国衙), 구케령(郡家領)의 대부분이 후지와라(藤原)씨와의 관계에 의해 흥복사(興福寺), 카스가사령(春日社領)이 되고, 거기에 진수사(鎮守社)\*로 모셔지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간다. 하치만신(八幡神)은, 동대사대불창건(東大寺大仏創建) 때의 옹호와, 그 후의 사원진수사(寺院鎮守社)로서의 존재와 함께 중세무가의 대두로 인해 넓게 분포해 간다. 또 천태계(天台系)의 사원진수사(寺院鎮守社)로서, 히에잔왕사(日枝山王社)가 모셔지고, 명치이후에 독립한 것도 많다. 이것도 신사분포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연해부(沿海部)에는 해류를 타고 이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와 함께 신사의 분포가 보인다. 보소반도(房総半島)에 쿠마노사(熊野社)가 많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지만, 쿠마노사의 전국적인 분포는 오히려 중세이후의 오시(御師)와 쿠마노비구니(熊野比丘尼)의 창도(唱導)가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기온(祇園)\*·스시마(津島)신앙은 신불습합(神仏習合)\*의 고즈(牛頭)천왕\*의 신앙과 밀착되어 있지만, 비후국풍토기(備後国風土記)의 무탑천신(武塔天神)과 결합해서, 소민(蘇民)장래신앙으로 특히 관서지방을 중심으로 신앙된다. 전국의 나고시노하라에(夏越の祓え)\*의 치노와(茅輪)\*는 이것에서 유래했다. 역병평유(疫病平愈)의 바램은, 불교의 약사(藥師)신앙과도 연결되어있지만, 야사카(八坂)·

야쿠모(八雲)신사 등으로 불려지는 이 계통의 신사에서는 강한 스사노오신\*을 모시고 있다.

또 병도 빙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이것을 물리치는 것이 신앙이 되고, 이즈모(出雲) 등 서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신사신앙에서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다.

산속에서 수행하고, 신의 힘을 얻는 야마부시(山伏 : 수행자)는 약이(藥餌), 병고치기 등 대중을 구하는 활동을 한다. 마음의 병과 함께 신체의 병도 고쳤다. 그 예 중 하나가 후지(富士)의 매약(売藥)이다. 이 산악신앙은 산을 신이 머무는 곳, 신이 지배하는 곳으로서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그 산에 있는 신은 물을 주고, 천후(天候)을 가르쳐주고, 해상에서의 위치를 가르쳐준다. 때로는 밭의 신이나 조상신이 된다. 신불습합에서 산속은 정토(淨土)이고, 지옥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많은 신앙은, 시대와 함께 그 형태도 변모한다.

신앙집단의 상황이나 명칭은 시대가 요구하는 조직화의 방법과 지역성에 따라 달라져간다.

스기야마 시게츠구(楳山林繼)